

미니테스트 제 10 회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19행언가-02

- ② 조선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피의자로부터 죄를 자백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죄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만 형이 확정되었다. 관리들은 자백을 받기 위해 심문을 했는데, 대개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평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틸 때에는 매를 쳐 자백을 받는 ‘형문’을 시행했다. 형문 과정에서 매를 칠 때에는 한 번에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한 번 매를 친 후에는 3일이 지나야만 다시 매를 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번 매를 친 후에는 형문으로 더 이상 매를 칠 수 없었다.
- ⑤ 평문이나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본형으로 매를 맞을 사람에게는 형문 과정에서 맞은 매의 수만큼 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 형문과 본형에서 맞은 매의 합계가 그 죄의 대가로 맞도록 규정된 수를 초과할 수 없었다. 형문과 본형을 막론하고, 맞는 매의 종류는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어졌다. 태형은 길고 작은 매를 사용해 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 없었다. 태형보다 더 큰 매로 치는 장형은 ‘곤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죄목에 따라 60대부터 10대씩 올려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 장형을 칠 때, 대개는 두께가

6밀리미터 정도인 ‘신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종이 상전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신장보다 1.5배 정도 더 두꺼운 ‘성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매를 쳤다. 또 반역죄와 같이 중한 죄인을 다룰 때에는 더 두꺼운 ‘국장’을 사용하였다.

- ①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책임자를 파직하거나 그로 하여금 장례 비용을 내게 했다. 단, 반역죄인에게 때리는 매의 수에 제한은 없었고, 형문이나 본형 도중 반역죄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 ④ 조선 시대에는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를 처벌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60대를 쳤다. 그런데 재범이거나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했을 때에는 처벌이 더 엄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처벌로는 100대를 때렸다.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의 경우 형문할 때와 본형으로 처벌할 때 택하는 매의 종류가 같았다.

- ①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심문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야 했다. → 형문의 경우에는 맞지만 평문의 경우에는 안함
- ② 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 → 100대 → 장형
- ③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백을 받지 않고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어떤 경우라도 자백을 받아야 함
- ④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 형문이나 많이 맞지 아니!
- ⑤ 평문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수히 자백하면 본형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였다. →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됨.

문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019행언가-05

① 미국 대통령 후보 선거제도 중 ‘코커스’는 정당 조직의 가장 하위 단위인 기초선거구의 당원들이 모여 상위의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원회의이다. 대의원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먼저 밝힌다. 상위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은 각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선출된다. 코커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다시 다음 수준인 의회선거구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여기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주(州)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해내고, 거기서 다시 마지막 단계인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주에 따라 의회선거구 전당대회는 건너뛰기도 한다.

② 1971년까지는 선거법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5월 둘째 토요일까지 코커스를 개최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1972년부터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전당대회를 7월 말에 개최하도록 결정하면서 1972년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코커스는 그 해 1월에 열렸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규칙에 코커스, 카운티 전당대회, 의회 선거구 전당대회, 주 전당대회, 전국 전당대회 순서로 진행되는 각급 선거 간에 최소 30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이 1976년부터 코커스 개최시기를 1월로 옮기면서, 아이오와주는 미국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가장

먼저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가 되었다.

③ 아이오와주의 선거 운영 방식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차이가 있었다. 공화당의 경우 코커스를 포함한 하위 전당대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여 당선된 대의원이 상위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그러한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공화당 역시 상위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에겐 같은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기층 당원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 전당대회에 참여할 주(州) 대의원 선출에 반영되도록 했다.

- ① 주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모두 의회선거구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었다. → 의회선거구 전당대회는 건너뛰기도 함
- ② 1971년까지 아이오와주보다 이른 시기에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는 없었다. → 1972년 이후에는 맞지만 그 이전은 아님.
- ③ 1972년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주 전당대회 선거는 같은 해 2월 중에 실시되었다. 4월
- ④ 1972년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코커스와 공화당 코커스는 같은 달에 실시되었다. → 1976년 이후부터 같은 달에 개최
- ⑤ 1976년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대의원은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었다.

→ 같은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6년부터 생김!

문 3.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행언가-32

“1 더하기 1은 2이다.”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둘 다 참인 명제이다. 이 중 앞의 명제는 수학 영역에 속하는 반면에 뒤의 명제는 사회적 규약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위 두 명제 모두 진리 표현 ‘~는 참이다’를 부가하여,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참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참이다.”와 같이 바꿔 말할 수 있다. 이 ‘~는 참이다’라는 진리 표현에 대한 이론들 중에는 진리 다원주의와 진리 최소주의가 있다.

진리 다원주의에 의하면 ㉠ 수학과 사회적 규약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위 두 명제들의 진리 표현은 서로 다른 진리를 나타낸다. 한편, ㉡ 진리 표현은 명제가 속한 영역에 따라서 다른 진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진리가 진정한 속성일 때에만 성립한다. 만약 진리가 진정한 속성이 아니라면 영역의 차이에 따라 진리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 다원주의는 ㉢ 진리가 진정한 속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 언어 사용을 통해 어떤 속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속성이 아니다. ~~진리가 진정한 속성이라면 언어 사용을 통해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 최소주의자들은 ㉤ 우리는 언어 사용을 통해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약 진리 최소주의가 옳다면 어떤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는 명확하다.

—〈보기〉

ㄱ ㄱ과 ㄴ은 함께 ㄷ을 지지한다. ㄱ, ㄱ → ㄷ : ㄷ
 ㄴ ㄴ과 ㄹ은 함께 ㄷ을 반박한다. ㄴ, ㄴ → ~ㄷ : ~ㄷ
 ㄷ ㄱ, ㄴ, ㄹ은 함께 ㄹ을 반박한다. ㄱ, ㄴ → ㄷ, ㄷ →

① ↗

② \sqsubset

③ \neg, \perp

④ \sqsubset, \sqsupset

⑤ 7, 2, 3

$$\textcircled{4}: \sim \textcircled{5} \rightarrow \sim \textcircled{7} \equiv \textcircled{7} \rightarrow \textcircled{5}$$

$$\boxed{\neg} : \boxed{\square} \rightarrow \sim \boxed{\square} \equiv \boxed{\square} \rightarrow \sim \boxed{\square}$$

②과 동치.

문 4.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영희가 들은 수업의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는? 2019행언가-14

심리학과에 다니는 가영, 나윤, 다선, 라음은 같은 과 친구인 영희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영희가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중에서만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영희가 <성격심리학>을 듣지 않았다면, 영희는 대신 <발달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을 들었다.
- 영희가 <임상심리학>을 들었다면, 영희는 <성격심리학> 또한 들었다.
- 영희가 <인지심리학>을 듣지 않았다면, 영희는 <성격심리학>도 듣지 않았고 대신 <발달심리학>을 들었다.
- 영희는 <인지심리학>도 <발달심리학>도 듣지 않았다.

추후 영희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들 진술 중 세 진술은 옳고 나머지 한 진술은 그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최대
①	1개	2개
②	1개	3개
③	1개	4개
④	2개	3개
⑤	2개	4개

1. $\sim \text{성} \rightarrow \text{발} \wedge \text{임} \equiv \text{성} \vee (\text{발} \wedge \text{임})$
2. $\text{임} \rightarrow \text{성} \equiv \sim \text{임} \vee \text{성}$
3. $\sim \text{임} \rightarrow \sim \text{성} \wedge \text{발} \equiv \text{임} \vee (\sim \text{성} \wedge \text{발}) \equiv (\text{임} \vee \sim \text{성}) \wedge (\text{임} \vee \text{발})$
4. $\sim \text{임} \wedge \sim \text{발}$

모순(동시에 참 불가)

* case 1: 3만 거짓(F)인 경우

인	성	발	임
X	O	X	X

→ 최소

* case 2: 4만 거짓(F)인 경우

인	성	발	임
O	O	O	O

→ 최대

문 5. 다음 <표>는 2019년 12월 호텔 A ~ D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2020행자나-26

<표> 2019년 12월 호텔 A ~ D의 운영실적
(단위: 개, 만 원)

호텔	판매가능 객실 수	판매 객실 수	평균 객실 요금
A	3,500	1,600	40
B	3,000	2,100	30
C	1,250	1,000	20
D	1,100	990	10

※ 1) 객실 수입 = 판매 객실 수 × 평균 객실 요금

2) 객실 판매율(%) = $\frac{\text{판매 객실 수}}{\text{판매가능 객실 수}} \times 100$

<보 기>

- 가. 객실 수입이 가장 많은 호텔은 B이다.
- 나. 객실 판매율은 호텔 C가 호텔 D보다 낮다.
- 다. 판매가능 객실당 객실 수입이 가장 적은 호텔은 A이다.
- ㄴ. 판매가능 객실 수가 많은 호텔일수록 객실 판매율이 낮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가, ㄴ
- ④ 나, 다
- ⑤ 나, ㄴ

객실 수입
64,000 (가)
63,000
20,000
9,900

L. C: $\frac{1,000}{1,250} = \frac{800}{1,00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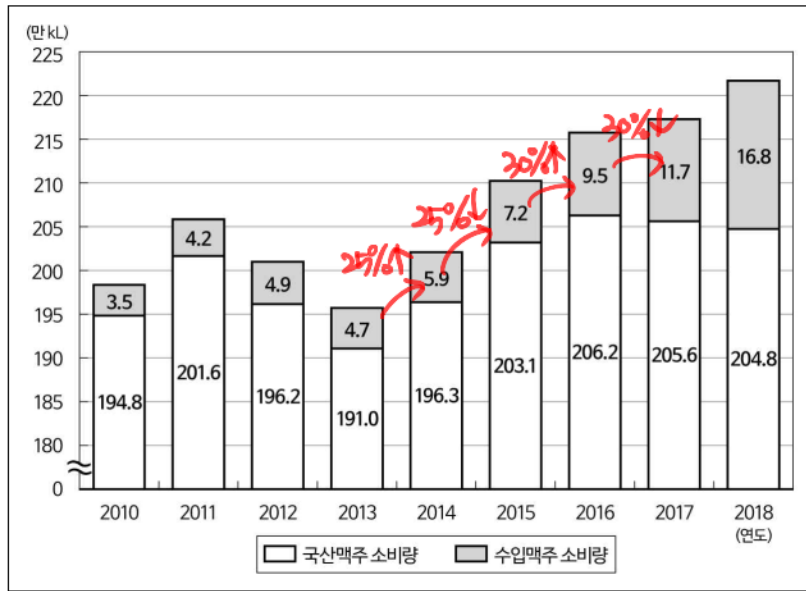
D: $\frac{990}{1,100} = \frac{9}{10} = 90\%$

A $\frac{64,000}{3,500} > \frac{9,900}{1,100}$ D
 > 10 $= 9$

문 6. 다음 <그림>과 <표>는 ‘갑’국 맥주 소비량 및 매출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9행사가-14

<그림> 2010 ~ 2018년 국산맥주 소비량 및 수입맥주 소비량



※ 맥주 소비량(만 kL) = 국산맥주 소비량 + 수입맥주 소비량

$$\text{㉠ 2010년} = \frac{3.5}{194.8 + 3.5} = \frac{3.5}{198.3} < 2\%$$

$$\text{2018년} = \frac{16.8}{204.8 + 16.8} = \frac{16.8}{221.6} > 7\%$$

<표> ‘갑’국 전체 맥주 매출액 대비 브랜드별 맥주 매출액 비중 순위 (단위: %)

㉠ 작아진 수

순위	2017년			2018년		
	브랜드명	비중	비고	브랜드명	비중	비고
1	파아스	37.4	국산	파아스	32.3	국산
2	하이프	15.6	국산	하이프	15.4	국산
3	드로이C	7.1	국산	클라우드	(8.0)	국산
4	막스	6.6	국산	막스	(4.7)	국산
5	프라이	6.5	국산	프라이	4.3	국산
6	아사리	3.3	수입	드로이C	4.1	국산
7	하이네켄	3.2	수입	R맥주	4.0	수입
8	R맥주	3.0	수입	아사리	3.8	수입
9	호가튼	2.0	수입	하이네켄	3.4	수입
10	갯포로	1.3	수입	파울러나	1.9	수입

㉡ 12.8 → 13.1

㉢ 2015년 2016년 2017년

$$172 \xrightarrow{23} 95 \xrightarrow{22} 117 \text{ (속절 X)}$$

$$\frac{23}{172} > \frac{22}{95} \text{ (자화대)}$$

증가량↓, 초기값↑

맥주 값이 오르면

<보고서>

㉠ ‘갑’국 맥주 소비량은 201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2013년 총 195만 7천 kL였던 맥주 소비량이 2018년에는 221만 6천 kL에 이르렀다. 이는 수입맥주 소비량의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파악된다. ㉡ 2010년 ‘갑’국 맥주 소비량 중 2% 미만이었던 수입맥주 소비량 비중이 2018년에는 7% 이상이 되었다. ㉢ 2014 ~ 2018년 ‘갑’국 수입맥주 소비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 → 2015년, 2017년에

2017년과 2018년 브랜드별 ‘갑’국 맥주시장 매출액 비중 순위를 살펴보면 국산맥주 브랜드가 1 ~ 5위를 차지하여 매출액 비중 순위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맥주 매출액 상위 10개 브랜드 중 수입맥주 브랜드가 ‘갑’국 전체 맥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보다 2018년에 커졌다. 그리고 ㉤ ‘갑’국 전체 맥주 매출액에서 상위 5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작아졌다.

㉠ ㄱ

㉡ ㄴ

㉢ ㄷ

㉣ ㄷ

㉤ ㄹ

문 7. 다음 <표>는 ‘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산정기준과 계절별 부하 시간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행사가-17

<표 1>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산정기준

월 기본요금 (원)	전력량 요금(원/kWh)			
	계절 시간대	여름 (6 ~ 8월)	봄 (3 ~ 5월), 가을 (9 ~ 10월)	겨울 (1 ~ 2월, 11 ~ 12월)
2,390	경부하	57.6	58.7	80.7
	중간부하	145.3	70.5	128.2
	최대부하	232.5	75.4	190.8

- ※ 1) 월 충전요금(원) = 월 기본요금
+ (경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금 × 경부하 시간대 충전 전력량)
+ (중간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금 × 중간부하 시간대 충전 전력량)
+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금 × 최대부하 시간대 충전 전력량)
2) 월 충전요금은 해당 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충전 전력량을 사용하여 산정함.
3) 1시간에 충전되는 전기자동차의 전력량은 5 kWh임.

<표 2> 계절별 부하 시간대

계절 시간대	여름 (6 ~ 8월)	봄 (3 ~ 5월), 가을 (9 ~ 10월)	겨울 (1 ~ 2월, 11 ~ 12월)
경부하	00:00 ~ 09:00 23:00 ~ 24:00	00:00 ~ 09:00 23:00 ~ 24:00	00:00 ~ 09:00 23:00 ~ 24:00
중간부하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7:00 20:00 ~ 22:00
최대부하	10: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7:00 ~ 20:00 22:00 ~ 23:00

- ① 모든 시간대에서 봄, 가을의 전력량 요금이 가장 낮다. → 경부하 여름이 가장 낮
② 월 100 kWh를 충전했을 때 월 충전요금의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는 16,000원 이하이다. → $(232.5 - 57.6) \times 100 = 174.9 \times 100 > 16,000$
③ 중간부하 시간대의 총 시간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 동일하다. → 8시간으로 동일
④ 22시 30분의 전력량 요금이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이다. → 겨울
⑤ 12월 중간부하 시간대에만 100 kWh를 충전한 월 충전요금은 6월 경부하 시간대에만 100 kWh를 충전한 월 충전요금의 2배 이상이다.

⑤ 12월: $2,390 + 128.2 \times 100 = 15,210$
6월: $2,390 + 57.6 \times 100 = 8,150 \uparrow \times 2 \downarrow$
5.760

문 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상가-23

- 정부□□청사 신축 시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위생기구(대변기 또는 소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 남자 화장실에는 위생기구 수가 짝수인 경우 대변기와 소변기를 절반씩 나누어 설치하고, 홀수인 경우 대변기를 한 개 더 많이 설치한다. 여자 화장실에는 모두 대변기를 설치한다.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

기준	남	각 성별 사람 수(명)	여	위생기구 수(개)
A		1 ~ 9		1
	30	10 ~ 35	30	2
		36 ~ 55		3
	80	56 ~ 80	80	4
		81 ~ 110		5
		111 ~ 150		6
B		1 ~ 15		1
	30	16 ~ 40	30	2
	50	41 ~ 75	40	3
		76 ~ 150		4
C		1 ~ 50		2
		51 ~ 100	100	3
	150	101 ~ 150		4

<보 기>

- ㄱ. 남자 30명과 여자 30명이 근무할 경우, A기준과 B기준에 따라 설치할 위생기구 수는 같다. → 각각 4개로 같음
- ㄴ. 남자 50명과 여자 40명이 근무할 경우, B기준에 따라 설치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같다.
- ㄷ. 남자 80명과 여자 80명이 근무할 경우, A기준에 따라 설치할 소변기는 총 4개이다.
- ㄹ. 남자 150명과 여자 100명이 근무할 경우, C기준에 따라 설치할 대변기는 총 5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남자: 2(대변기) + 1(소변기)

여자: 2(대변기)

남자: 2(대변기) + 2(소변기)

여자: 3(대변기)

∴ 대변기 개수 = 5개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백화점이 한 해 캐롤 음원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2019행상가-17

○○백화점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11월 네 번째 목요일) 이후 돌아오는 첫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백화점 내에서 캐롤을 틀어 놓는다(단, 휴점일 제외). 이 기간 동안 캐롤을 틀기 위해서는 하루에 2만 원의 음원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백화점 휴점일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이지만, 크리스마스와 겹칠 경우에는 정상영업을 한다.

- ① 48만 원
- ② 52만 원
- ③ 58만 원
- ④ 60만 원
- ⑤ 66만 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1		
			7	8		
			14	15		
			21	22		
26	○	28	29	30	12/1	
					8	
					15	
					22	
23	24	25				

25 + 4 = 29일 짜
∴ 29 × 2 = 58만 원

*참고.
1. 11/1이 금요일 → 네 번째 목요일 = 11/28
2. 11/1이 수요일 이전 → 25일 외에 추가로 더해지는 2일이 존재함
∴ 11/1이 목요일일 때, 캐롤을 틀는 날이 최대가 됨.